

‘대선 6월3일 확정’... 지역 현안 공약 선점 ‘총력’

광주시·전남도, 지역공약 발표
市, 15대과제 40개사업 81조 규모
AI산업 육성·문화도시·교통인프라
道, 20개 핵심과제...총 191조 규모
국립의대·솔라시도 AI슈퍼클러스터
“尹정부서 외면... 차기 정부 반영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3일로 확정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점을 위해 지역 핵심현안의 대선 공약화에 본격 나섰다.

특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광주·전남 주요 현안이 사실상 외면받았던 터라 이번 대선 공약에 지역 사업들이 대거 반영돼 차기 정부에서는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8일 제21대 대선에 발맞춰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건의할 대선 공약을 확정, 발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단위 7개 과제 23개 사업, 초광역 단위 3개 과제 7개 사업, 국가 단위 5개 과제 10개 사업 등 15대 과제 40개 사업을 제시했다.

총 사업비는 81조원 규모로,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육성과 문화도시 재도약, 미래형 교통인프라 구축 등이 핵심이다.

광주시의 지역 단위 사업으로는 13조 4000억원을 투입하는 ‘The BRAIN 광주’ 조성과 7조 4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인 ‘메가 샌드박스형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구축’ 등이다. 2조 5000억원 규모의 ‘넷제로 분산에너지 허브’와 ‘빛그린·미래차 국가산단’,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및 양자·휴머노이드 디텍트 산업 기반’, ‘내륙도시 에너지 특화 분산에너지 클러스터’ 등도 포함됐다.

국가 단위 사업으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형 신설’과 ‘AI 융합 콘텐츠 문화기술(CT) 연구센터 설립’ 등을 마련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8일 광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공약 제안발표를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5·18규모의 민주공원 조성 △국립현대미술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국회도서관 등 3대 국립시설 유치 등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초광역 단위 사업으로 △전남 초광역 협력 기반 국가 주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서남권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 등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차기정부에 보내는 ‘광주의 제안’은 ‘AI주도 초격차 성장도시, 광주’라며 “과거의 광주가 오늘의 대한민국의 내일에 새로운 활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각 정당의 공약과 차기정부 국정과제에 ‘광주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도 이날 기획조정실 주관으로 브리핑을 갖고 핵심과제 20건과 분야별 지역발전과제 35건, 제도개선 및 국정제

안 과제 20건 등 총 75건의 대선 공약을 발굴해 발표했다.

전체 사업 규모는 약 191조원으로, 의료·에너지·우주·해양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제1호 공약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으로 정했다. 이어 전남 경제의 버팀목인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이 2, 3호 공약이다.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확보 △초광역 SOC사업인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고흥-세종) △서해안철도(군산-목포) 등을 선도모델 사업으로 제시했다.

분야별 지역발전과제로는 △미래항공 모빌리티 연계 초광역 항공 인프라 △솔라시도 AI 자율제조 실증 허브 조성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스마트 농업 인프라

확충 △외국인 특화지역 조성 등 35건을 제시했다.

국정제안 과제로는 지방소멸 위기와 인구감소 대응을 중심으로 △국가 출생기반수당 신설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정책화 △인구소멸지역 필수로 확충 △만원주택 전국 확대 △농업소득 안정기금 확대 등 20개 과제를 발굴했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남이 가진 비교우위 자원과 여건을 토대로 AI 등 급변하는 세계적 트렌드에 맞춰 전남발전에 꼭 필요한 중대형 프로젝트를 균형있게 발굴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두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발빠르게 움직여 각 정당과 후보자를 상대로 공약과제를 건의하고 지역 핵심현안이 국정과제 및 대선공약으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오지현·정상아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
내달 12일부터 22일간 선거운동
선관위, 사전투표 등 일정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권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6월 3일로 정해짐에 따라 주요 선거사무일정을 확정했다.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이 선거일 전 40일인 오는 24일 마감된다. 후보자등록은 휴일임에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할 수 있다.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국회의원 제외)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작성하며, 같은 기간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다. 이어 선거운동은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17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24일까지 전단지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매 세대에 발송한다. 20일부터 25일까지 전세계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된다. 26일부터 29일까지는 선상투표가,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서울=김선욱 기자

全南日報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전남해외상설판매장

- 동남아시아 ONE MART
- 유럽 Sunrise Supermarkt, K-Shop
- 미주 한남 Buena Park, 한남 LA, 한남 Torrance, 한남 Del Amo, 한남 New Jersey
- 호주 FREEZIUM MARKET, SEOUL MART

▶생명의 땅, 청정 전남에서 나고 자란 우수한 농수산물을 지구촌 곳곳에 알립니다.
▶골든힐은 수출에 관심 있는 전남소재 식품제조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골든힐 |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55-90 | T. 061.332.1998 F. 061.334.1997 | E. golden0311@naver.com